

문화·학술계의 法床에 오른 의천 스님

열반 9백주기 ... 11월 6~14일 특별전 16일 학술제 17일 예술제

문광부 선정 '11월의 인물'

"원하는 바 정도를 중흥하려 함인데, 병마가 그 뜻을 빼앗았나이다. 바라옵건대 지성으로 불법을 외호하시와, 여러께서 국왕 대신에게 불법을 외호하라 하시면 윤향을 봉행하시오면 죽어도 유감이 없나이다." 고려 제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사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승 가운데 한 분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현왕(元王) 숙종에게 남긴 유언이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11월의 문화인물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1055~1101)의 열반 900주기를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판만대장경 조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신권제종교장총목>과 <고려속장경>을 간행했으며, 선교양종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고려 중기에는 이들의 통합과 화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한반도 불교 전래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왔던 법화사상을 현대불교의 창립으로 꽃피웠다. 의천 스님은 또한 국가경역에

지 조연을 아끼지 않는 등 당시 사회·경제·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송나라 유학 후 전회(錢會)의 유통을 강력히 주창하는 '청주전표(淸州錢表)'를 발표해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화폐 경제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때 주조된 화폐가 바로 해동통보, 삼한통보, 동국통보, 해동중보 등이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이같은 사상과 업적은 그대로 계승되어 현재 현대불교의 3대 지표인 애국 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로 실천되고 있다.

먼저 11월 6일~1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대각국사 의천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는 대각국사 진영(보물 1044호), 대각국사 금란가사, 대각국사 운문칙의, 대각국사 향로, 홍왕사 출토 대각국사 묘지명석과 영통사, 선봉사비 탁본을 비롯해 국사의 저서인 대각국사 문집, 외집, 속장경 간기와 법화경 보문품 삼현원찬과문(보물 204호), 대방광불화엄경(보물 1017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보물 390호) 등 10여점의 국가지방지정 문화재가 전시된다. 또한 고려시대 불교문화화를 엿볼 수 있는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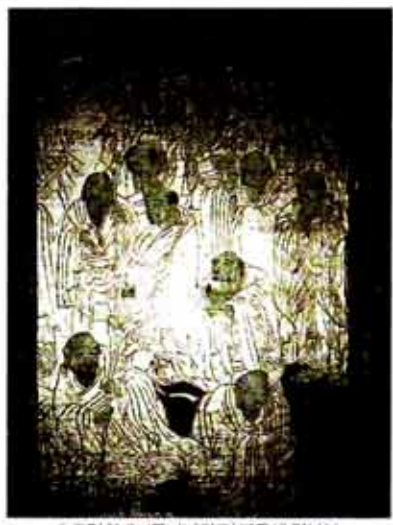
음보살 입상, 백지금니법랑보살계경, 청동은입사합, 청자발우, 청자다란 등과 현대사교의 집주, 현대3조사위패, 현대종 승려가사, 현대 천태종 서적 등 천태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100여점이 전시된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천태 국제학술회의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천태종 관문사 옥보전에서 열린다. 한 중 일 3개국 7명의 학자가 참가하는 학술회의에는 의천의 중국활동·의천 문헌을 통한 일본과의 교류·의천과 그 이후의 천태법류·의천의 문학사상·고려 불교에서의 의천의 위상·주전론을 통한 의천의 경제관·의천의 천태사상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7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제7회 천태예술제에서는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국악관현악과 불교의식, 무용으로 재현한 '교성곡 대각국사 의천'이 선보인다. 천태종 법배 보존연구회와 卍리움무용단, 천태종 연합합창단, KBS국악관현악단 등이 참여한다. 023460-5300

이은자 기자 eejill@budhappa.com



▷법화사상을 정리하고 천태종을 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구법활동 뿐 아니라 고려중기의 사회·경제·정치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대각국사영정.



▷조영희 작 '금니나한도' 가운데 일부부분.

전승공예대전 은상

조영희 작 '금니나한도'

제2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조영희씨(49) 작 불화 '금니나한도'의 부분이다. 6폭의 병풍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104점의 나한과 동자승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전승공예대전 대상에는 최남선씨의 '가죽울림'이 선정됐으며, 금상 박귀래씨의 '철화머릿장' 등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12월 12일까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전시된다.

문화소식

한·일 사찰음식 교류전

제주 외천사주지 성공스님은 30일~31일 한국의 사찰음식과 일본의 정진(精進)요리를 선보이는 한·일 사찰음식문화교류전을 갖는다. 약천사 '오백나한 분안식' 및 국제가사불사 회향대법회 봉행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양국 사찰음식문화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064738-5000

구미 불비니합창단 연주회

구미 불비니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가 31일 오후 7시 30분 구미예술문화회관공영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불비니어린이합창단이 찬불가와 동요를 연주하고, 천태종 금오합창단과 대한불교소년소녀무용단 등이 찬조 출연한다. 또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도 출연한다. 054453-7424

11월 1~4일 화순운주대축제

제6회 화순운주대축제가 11월 1일~4일까지 화순 운주사, 고인동 공터 등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기원제를 비롯해 운주사 삼거리에서 대웅전까지 연등에 불을 밝히는 만등불사 행사와 석불제각, 발우공양 등이 진행된다. 0611374-0660

최선호 '마음의 정찍기展'

화가 최선호씨(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마음의 정찍기(靜心 正)' 전이 11월 2일까지 서울 팔판동 갤러리 인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송광사 참선 수련회에 참가한 이후 참선 수행을 해 오고 있는 최씨는 무념무상의 경지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02732-4677

※기사 넘쳐 '김홍권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는 읽습니다.

7대 종단 예술제 통해 '종교의 벽' 허물기

11월 9~15일 음악제 등 열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의 7대 종단이 문화를 통해 종교의 벽을 허물자고 나섰다. 제5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과 남산 메나에이선센터, 프레스 센터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이만신)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불교와 기독교가 원주경찰서 경승실 불상 설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행사여서 같은종교 간 화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종교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악제: 9일 오후 7시 30분에는 원불교 주권의 음악제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김영익, 조상현씨의 창 공연을 비롯, 불교연합합창단, PBC소년소녀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 원음합창단 등 연합합창단의 연주도 선보인다.

•미술제: 불교계가 주관하는 미술제는 9일부터 15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석원씨의 '바다세' 등 한국화 34점과 이만익씨의 '미륵반가상' 등 서양화 49점을 비롯해 김선삼 씨의 '우뚝서기' 등 조각 22점, 총 151점이 전시된다.

북한영화 '소금' 상영

•영화제: 개신교가 준비한 영화제에서는 9일 북한영화 '소금', 10일 'A.T', 11일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12일 '어둠속의 댄서'가 오후 4시와 7시 하루 2회 상영된다.

•학술세미나: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천주교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21세기 한국 가정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02766-4776

有萬造心

▷석주 스님 작 '심조만유'

'禪墨一如' 세계로의 초대

석주·석정 스님 불교텔레비전 돕기 선서화전

11월 14~20일 공평아트센터

평생을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불자들을 이끌어 온 석주 스님(원보사 조실, 92)과 우리 불교 미술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오고 있는 석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73)의 선묵화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린다.

'선속의 묵향'을 주제로 11월 14일부터 20일 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는 불교텔레비전의 위성방송 설립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는 90을 넘어선 노구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의 본분사를 잊지 않고 있는 석주 스님의 서예작품 37점과, 출가 이후 60여년을 오로지 붓과 벼하며 그림그리는 일과 수행이 돌아남을 몸소 실천해 온 석정 스님의 선서화 104점이 전시된다. 선불교의 정신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체의 분별을 떠난 깨달음에 들어서는 것이다. 선서화는 이런 깨달음의 정신을 표



▷석정 스님 작 '면벽달마'

현에 내는 것으로, 예술적 기교뿐만 아니라 삶과 우주를 꿰뚫는 선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석주 스님의 글씨와 석정 스님의 선서화는 오랜 선수행을 통해 이루어진 선(禪)적 체험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석주 스님의 글씨는 대나무처럼 곧고 단아한 필체로 선적인 향기를 뽐낸 증거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심조만유(心造萬有)>와 <세계일화(世界一花)>등 일필휘지로 쓴 선서에서 스님의 수행 경지를 엿볼 수 있다.

'선서화의 참맛은 담백한 데 있다'고 말하는 석정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여느 선서화가의 작품과는 다른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통해 선묵일여(禪墨一如)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023270-3413

이은자 기자

심장병 어린이 고통 나누기

한마음선원 합창제 ...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심장병어린이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어린이와 청년, 어머니와 스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입을 맞추는 한마음선원 합창제 '님의 소식'이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마음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는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한마음선원 전국 15개 지원의 어린이, 청년, 어

머니, 비구니스님 합창단 700여 명이 참여해 그야말로 사부대중의 음성으로 대행 큰 스님의 가르침을 노래하게 된다.

특히 한마음선원은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을 심장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합창제는 오후 4시와 7시 2회 공연된다. 0311470-3100



▷'한마음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는 전국 15개 지원의 어린이, 청년, 어머니, 비구니스님 합창단이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 1997년 공연 모습.

탁자·담집 만듦은 전문업체에 맡기 십시오



▷조각부 - 불상, 시인상, 선인상, 목명와
▷목공부 - 탁자, 담집, 경각 의
▷건축부 - 건물, 연대의 건축



▷역공부 - 불상, 석등, 부도, 담
▷역공부 - 단경, 명와, 담



대한불교예술원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무릉리 545-5
TEL : 031-542-3296 / FAX : 031-543-1686
사 장 한성용 (011-336-5200)

대한불교예술원은 현대불교문화의 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불상, 조각, 건축, 목공, 역공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